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이 수 진*

조 상 미**

이화사회과학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본 연구는 사회경제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3,998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생애주기(탄생, 발전, 쇠퇴)로 분류하였다. AMOSS 28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지원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다르며,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이 관계에서 다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원정책은 모든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매개되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전기에서는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원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공동체 활동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적 성과 창출은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조직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지원정책의 세분화된 지원 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지역사회 자생력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요어: 생애주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 네트워크, 사회적성과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이수진/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Tel: 02- 3277-2278/E-mail: 201sng05@gmail.com

** 교신저자: 교신저자: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Tel: 02-2271-9017/E-mail: sangmicho@kcpass.or.kr

I. 서론

기업의 생애주기 연구는 오귀스트(Auguste Comte)의 실증주의 사회학 모델인 사회유기체설과 기업 성장을 핵심 경영 문제 해결로 설명한 1972년 그라이너(Larry E. Greiner)의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왔다. 이후 1980년대 벤처기업들이 창업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으며 쇠퇴하고 폐업하는 사례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발전하였다. 기업의 생애주기는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 중 하워드 러브(Howard Love)는 2016년 저서 ‘스타트업-J커브(The Start-up J Curve)’에서 기업 성장을 6단계로 제시하며 초기 4단계까지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생존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았으며 기업의 생애주기는 비선형 성장으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되며 극복하지 못할시 폐업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곽근재, 2017).

따라서 브러시와 밴더워프(Brush & Vanderwer, 1992)는 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창업가 역량과 고객 관계, 성장 후기에는 조직적 역량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성장 필요요소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창업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곽근재, 2017; 조상미 외,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보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왔다. 2007년 이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초기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부처별,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3천 개의 사회적 기업과 2만 2천 개의 협동조합을 조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반면, 창업 지원 및 재정 지원 위주의 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제고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부정적 견해 또한 많다(김숙연, 강수진, 2017; 엄태기, 김석은, 2021).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조직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 지원과 관리 감독은 비례함에 따라 관리·규제, 지원정책 목표 위주의 성장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및 창업 수 확대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방향이 개편될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다(채중헌, 2014).

이러한 견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별 중간 지원조직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지원, 기금 마련 등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회적경제 정부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17개 부처 79개 사업 중 공통지원사업이 33%(26개), 예비 창업 또는 기업 지원사업 22% (17개),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요소에 따른 지원이 아닌 연차 또는 조직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23). 기업의 생애주기는 생물체의 생애주기와 다르게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직선형 성장이 아닌 비선형 성장곡선을 나타낸다(Connolly, 2006).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연차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닌 각 조직의 현재 시점의 기업 성장단계 필요요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와 자생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하고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

기업은 창업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는데 이러한 기업 성장 과정을 유기체적 관점으로 1968년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에서 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설명하였다(박다인, 박찬희, 2018). 기업은 폐업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위기가 성장 동력이 되어 성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생물체의 탄생-성장-소멸과 같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직선형으로 성장하는 생물체와 다른 비선형 성장을 나타낸다(Connolly, 2006).

이러한 기업의 생애주기 구분 단계를 기업의 상황과 구조, 내·외부적 환경, 경영전략, 자금조달 등 연구자마다 개념과 핵심 요소에 대한 기준이 다른 만큼 단계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등 다양하다(경중수, 이보형, 2010). 1972년 그라이너(Larry E. Greiner)가 기업 생애주기를 기업이 당면한 핵심 경영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벤처기업 육성이 활성화되면서 기업 생애주기 연구는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경로과정을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박주원의, 2019).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대해 하워드 러브(Howard Love)는 6단계로 제시하며 창업이후 시장에 진입하기 전단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였으며 죽음의 계곡을 스타트업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곽근재, 2017).

따라서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요소와 필요 사항들을 예측하면, 각 주기에 따라 적절한 필요 자원 및 기업 경영에 효과성 및 경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조상미 외, 2012; Toronto Enterprise Fund, 2003)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시스템의 정립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곽근재, 2017; 조상미외, 2022). 따라서 창업초기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에도 지원체계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에는 서도원(2011)은 사회적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정부 지원은 창업단계에서 필수적이나 성장단계에서는 축소 또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상미 외(2012, 2017, 2022)는 변화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생애주기별 폐업의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유두호, 엄영호(2021)는 정부 지원정책이 성숙, 위기 단계에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성장단계에서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연구는 대부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증적 분석 및 일반화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에 관한 실증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사회적경제는 1900년대에 프랑스 경영학자 샤를 지드가 당시 도시 노동자의 문제인 소득 분배 불평등, 의료, 실업 문제 등을 협동조합, 공제조직과 같은 조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념

화되었다(신명호, 2009; 김정원, 2017). 산업혁명 이후,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빈곤과 실업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을 결성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조직 결성의 시작이다(장원봉, 2006).

1930년대 시장 불안정과 자유주의 시장체제 한계를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정책으로 대처하였으나 과도한 국가 개입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고 이는 사회적 경제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신명호, 2009; 이아름, 2013; 홍중학, 2017).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사회자본 중심의 경제발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이 드러나면서(장원봉, 2007; 김경례, 윤영선사, 2015) 사회적경제를 대안경제로 정부차원에서 발전시켜 왔다(Miller, Ethan, 2015).

사회적경제조직 등장배경을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대안 체제로 주목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정부 주도로 빠른 속도로 양적으로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빠른 양적 성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동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본질에 따라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그러나 열악한 내부 역량과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하는 조직의 성향으로 시장체제에 안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성과와 사

회적 성과로 구분하는데 최근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성과 연구들은 특정 조직이 해결하는 사회 문제와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유두호, 2022). 사회적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케팅과 조직관리 등 조직 역량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문준, 2018), 경제적 성과와 취약 계층 고용비율과의 관계(윤경옥 외, 2018; 유두호 외, 2019), 그리고 정부재정지원의 사회적 성과 효과(이경은, 2020)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와 비영리 경계에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김동철, 김정원, 2016). 국내 사회적기업 여건에서는 시장경제 활동 외에도 정부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필요로 한다(오상환, 2018). 취약 계층 고용은 사회적 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이 낮아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박민정, 2017).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일자리위원회, 2017)으로 협력체계,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영향요인

(1) 지원정책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다. 2007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초기에는 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2013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적 가치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고용노동부, 2013; 반성식 외, 2011; 조상미 외, 2022). 2017년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지역별 중간 지원조직과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기금마련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 생태계

조성 지원정책을 도입했다(관계부처 협동, 2017). 이어진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정 과제는 인제 양성,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으로 발전했다(고용노동부, 2021).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앙부처 사회적 경제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확인한 결과, 정부관계부처 지원사업이 총 54개로 경영, 기술, 금융, 판로, 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하나 2개 이상 분야 지원이 30개로 56% 나타났으며 창업 및 재정지원이 16개로 30% 나타났다. 정부 지원정책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흥택(2018)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속 가능한 지역생태계 구조에서 공공의 역할을 지원 인프라, 관심과 의지로 확장하여 제시했다. 이는 지역사회 생태계 일부로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행정 중심의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 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수립, 지원계획이행, 관련 정책 사업 연계 지원 및 기금 조성 연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체계가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네트워크(Network)는 둘 또는 집단간 사회적 연결 체결로 정의할 수 있다(민수진외, 2015).

네트워크는 정보 접근과 외부 자원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권소일, 이재희, 2018; 이해진, 2019),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노동부(2013)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도록 정책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거나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반성식 외 2011; 정대용, 노경훈(2009).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의 종류, 범위, 빈도, 중요도, 신뢰도 등의 차이 또는 조직의 상황과 발전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최애희 외, 2018).

요약하면, 네트워크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신뢰(연계성)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대용, 양준환, 2009). 따라서 지역사회 조직간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조직 간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공통 목표를 가진 협의체인 거버넌스로 성장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 민간, 비영리 기관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강병준, 2014). 거버넌스는 일회성 또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쌍방 간의 관계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이해진, 2019).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호협력을 하는 관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연결망 그 자체로 통치와 실행조직의 의미를 가지는 거버넌스와 구분되며,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타협의 조직형태로 차이가 있다(안윤주, 2013; 조윤숙, 2022).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 조직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정책 과정을 네트워크 구조로 이해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안윤주, 2013; 오철호, 고숙희, 2012).

이러한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상미, 김진숙(2014)은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든 영역의 행위자가 협력하는 형태로 제1섹터인 정부, 지방자치단체부터 사회경제 조직과 같은 제4섹터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박소연·변병설(2014)은 거버넌스를 지역 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새로운 형태로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단간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개념을 포함한 통치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또한 안윤주(2013)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정부, 시장, 시민 조직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 문제 해결체제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동등한 의사결정권과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안태숙, 2011; 김보영, 2013).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관리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또는 공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김정숙 외, 202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요한 자원인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연구들에서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외부 자원적 관점에서 강병준(2014)은 거버넌스가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이양복과 최항석

(2016)의 연구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거버넌스 활동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유두호(2022)와 조상미 외(2022)의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엄태기와 김석은(2021)의 연구는 정부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신명호와 이아름(2013)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법과 제도 외에도 외부적 협력체계인 네트워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기타 영향요인

이외에도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영향 요인으로 지역, 근로자수(조직규모), 조직유형에 따른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 국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사회·문화자본 격차 는 지역 노동격차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고 하였다(김형수 외, 2023)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영컨설팅 및 정보 교환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과창출에 유리하다(김정원, 2016; 유두호, 2022).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규모를 나타내는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생산력이 높아져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상미,이재희, 2015). 또한 조직 유형에 관해서 김세운 외(2024)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영향 요인인 소재지, 조직유형, 근로자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5) 지원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지원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정부 의존도에 구조적 관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정규진 외, 2013).

박현희, 박은영(2017), 조상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관계(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협력,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 김해니(2021)는 네트워크가 재정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반면, 간기현(2022) 연구에서는 재정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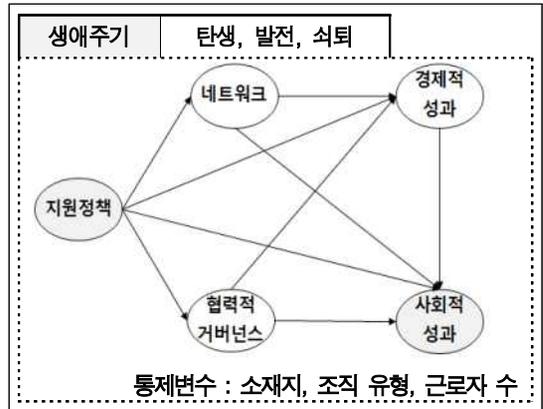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생애주기에 따라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관계를 규명하고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와의 매개효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지원정책과 매개변수로서의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와 종속변수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성과, 조절변수인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질문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 질문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 가설 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질문 2.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가 있는가?

- 가설 8.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는 지원 정책

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 정(+)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9.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0.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는 지원 정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원 정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경제적 성과가 정(+)적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4.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정(+)적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질문 3.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영향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 15.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성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과 영향 요인 및 이들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각 시기에 맞는 성장 환경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20년에 실시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자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7개 기초 자치단체 내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대표, 이사, 총괄팀장 등)가 기업 현황, 매출 현황, 사업 영역, 지역사회 지원 정책 및 네트워크 활동 여부, 생애주기,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필요 정책 수요 및 지역문제 인식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해당 조사는 2020. 10. 5.~11 13일까지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030개의 응답 중 일부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3,998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8.0 프로그램으로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 분석, 매개 효과 분석, 다중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분산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의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4.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 사회적경제조직 궁극적 목적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다고 보고 최석현, 남승연(2015), 조상미 외 (2022) 등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비중, 지역 창업활동 소득, 고용 창출 지방재정, 빈곤 감소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지역사회 기여 정도 7가지를 사회적 성과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7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1은 응답이 부정적임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해석한다.

(2) 독립변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측정은 사회적경제지원사업(2022) 등을 근거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제도, 기업 발굴 육성계획, 지원계획 이행, 연계 사업 발굴, 기금 조성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세부 문항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이 우수하다고 해석한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을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성으로 정의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업, 민간기업과의 연계성을 11점 리커트 척도로 합산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네트워크 연계를 강하다고 해석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의 측정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대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 역할 수행, 신뢰와 파트너십에 관한 2개의 문항으로 확인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거버넌스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경제적 수익 증가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를 4개 항목, 즉 평균 매출액, 평균 총수입, 총 영업이익 및 총자산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세부 항목 측정 기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4) 조절변수

기업의 생애주기 구분은 사전적으로 규정된 성장주기 중 첫째,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과 둘째, 기업 구역, 규모, 성장률 등의 변수기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김영배, 하성욱 2000; 조상미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를 '창업 이후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불안요소를 극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선형적 생존 과정'으로 정의하고 생존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전략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한 생애주기 5단계를 하워드 러브(Howard Love)가 제시한 창업이후 시장 진입 전단계인 스타트업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인 죽음의 계곡까지를 탄생기, 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장진입 후 성장하는 시기를 발전기, 성장없이 폐업, 휴업을 고려하는 시기를 쇠퇴기로 3단계로 재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탄생기는 창업 이후 조직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사업계획 및 전략 정립 및 시장에 적응해 가는 시기로 보았으며, 발전기는 운영시스템이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시장, 상품, 서비스 등이 확장되고 새로운 이익 창출 모델을 구상하는 시기로, 쇠퇴기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업종전환 또는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시기로 재정리하였다.

<표 1> 사회적 경제 조직 생애주기 세부항목

단계	내용	단계	내용	근거
시작	시장진입을 위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단계	탄생	창업 이후 조직 운영을 시작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및 시장 적응 시기	Mueller (1972), Miller & Friesen (1985)
생존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략 수정단계			
성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성장에 따른 효율성, 시장-서비스-상품 확장이 필요한 단계	발전	운영시스템 정착, 이익창출 모델 안정화, 시장, 상품, 서비스 등 확장 및 새로운 투자 요구	
성숙	지속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자 요구가 필요한 시기로 이익창출 모델 사업 정립단계			
위기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 업종전환 및 휴업,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	쇠퇴	업종전환 또는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시기	

※ 출처: (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오) 이수진, 2023.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3,998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사무소 소재지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조직이 2,721개소(68.1%)로, 수도권 소재 1,277개소(31.9%)의 두 배 이상이며, 주요 사업지역은 자치단체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이 2,857개소(71.4%), 전국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이 1,141개소(28.5%)로 집중 나타났다.

조직 유형은 협동조합형 조직이 2,156개소(53.9%)로 가장 많고, 사회적기업 유형은 1,246개소(31.2%), 혼합형은 596개소(14.9%)임. 일반 협동조합이 1,435개소(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회복지법인은 27개소(0.7%)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업종 유형은 제조업 625개소(15.6%), 금융 및 보험업 615개소(15.4%), 교육서비스업 550개소(13.8%) 순으로, 특정 업종에 편중하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 변수들(지원 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의 기술 통계에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10 범위 내에 있어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이는 각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분석결과

항목	M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 값	최대 값
지원정책	3.20	0.739	-0.300	0.650	1	5
네트워크	4.99	2.173	-0.324	-0.207	0	10
협력적 거버넌스	3.43	0.860	-0.478	0.438	1	5
경제적 성과	3.13	0.713	-0.240	0.791	1	5
사회적 성과	3.00	1.045	-0.301	-0.645	1	5

3.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규성 검증 결과, 모든 주요 변수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관계 계수가 모두 0.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원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간에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0.620, $p < .001$)가 관찰되었고, 지원 정책과 경제적 성과 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0.174, $p < .001$)가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값은 상관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지원정책	CR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사회적성과	(.724)					.884	.895	.881
경제적성과	.359***	(.868)				.924	.898	.922
협력적 거버넌스	.353***	.229***	(.904)			.899	.915	.899
네트워크	.502***	.252***	.558***	(.706)		.799	.531	.800
지원정책	.317***	.209***	.699***	.484***	(.823)	.912	.930	.911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 = \sqrt{AVE}

본 연구 관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공차 .10보다 작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연구모형분석

(1) 구조모형분석결과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경로계수, 표준오차, 다중계급상관 등을 확인하고, 카이제곱,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

수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기 전후의 모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를 포함하기 전의 모델은 카이제곱(χ^2)=2688.820(df=200, $p < .001$), CFI=.955, TLI=.948, RMSEA=.056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예측하고, 잠재변수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분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구분	χ^2	p	df	CFI	TLI	RMSEA
기본 모형	2688.820	.000	200	.955	.948	.056 (.054~.058)
통제변수 포함	3603.650	.000	260	.941	.932	.057 (.055~.058)
적합도 기준				.90 보다 크면 적합		≤ .08 보다 작으면 적합

주1) 통제변수: 소재지/조직유형/근로자 수

주2)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간의 직접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은 사회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beta=.060, p<.001$)을 미쳤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성과($\beta=.365, p<.001$)와 경제적 성과($\beta=.170, p<.001$)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협력적 거버넌스 역시 사회적 성과($\beta=.079, p<.001$)와 경제적 성과($\beta=.099,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beta=.198,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원 정책은 경제적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N=3998

가설	경로	Estimate				
		비표준 계수	표준 화 계수	S.E	C.R	P
1	지원정책	0.021	0.023	0.023	0.898	.369
2	네트워크	0.106	0.365	0.006	16.708	.000
3	협력적 거버넌스	0.061	0.079	0.018	3.375	.000
4	경제적 성과	0.110	0.198	0.009	12.408	.000
5	지원정책	0.096	0.060	0.044	2.171	.030
6	네트워크	0.088	0.170	0.011	7.984	.000
7	협력적 거버넌스	0.137	0.099	0.035	3.917	.000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 결과,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

회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대용, 양준환(2009), 최민석, 송원근(2021)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병준(2014), 엄태기, 김석은(2021), 유두호(202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유두호, 엄영호(2021)의 연구에서는 지원 정책이 사회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원 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최무현, 고은주(201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우수할 경우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제시된 가설 2, 3, 4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제시된 가설 5, 6, 7은 모두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1은 지원 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라 기각되었다.

(2) 다중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해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검증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모두 정(+)적인 매개 효과를 보였고, 경제적 성

과는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이중 매개 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했다. 전체 계수 간접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하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성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6> 연구모형 매개효과 및 경로계수 ①

변수 간의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신뢰구간 (95%)		가설 채택
				최저	최고	
지원정책 → 사회적 성과	.273**	.021	.252***	.208	.293	
가설 8 지원정책 → 네트워크			.164	.139	.192	채택
가설 9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050	.016	.084	채택
가설 10 지원정책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	.011	.001	.021	채택
가설 13 지원정책 →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015	.011	.021	채택
가설 14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12	.006	.021	채택
지원정책 → 경제적 성과	.344**	.096*	.248***	.183	.317	
가설 11 지원정책 →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136	.099	.176	채택
가설 12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112	.049	.175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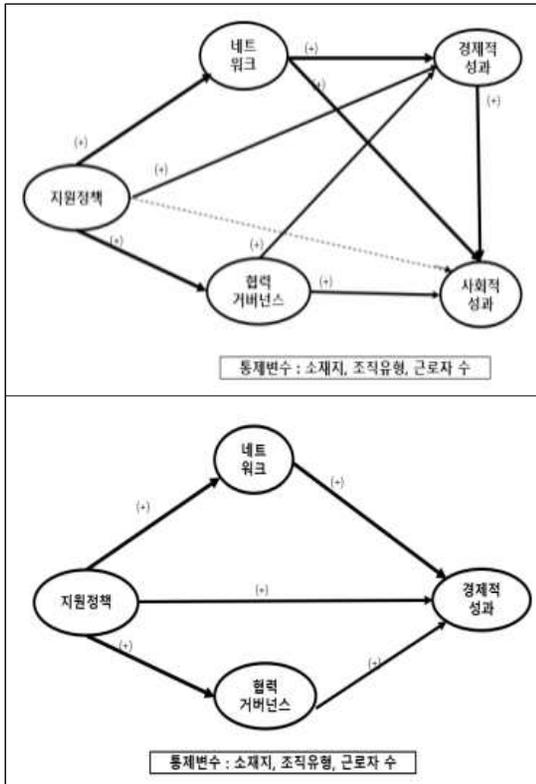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성과 향상에 있어 지원정책은 직접

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경우 또는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가 이중 매개 역할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는 지원정책의 사회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 매개효과 및 경로계수 ②

가설	변수간의 경로	Estimate		S.E	P
		B	β		
	총효과	.273	.306	.020	.000
	직접효과	.021	.023	.026	.416
	간접효과	.252	.283	.022	.000
가설 8	지원정책 → 네트워크 → 사회적 성과	.164	.184	.013	.000
가설 9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 사회적 성과	.050	.056	.017	.005
가설 10	지원정책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	.011	.012	.005	<.000
가설 13	지원정책 →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015	.017	.003	.040
가설 14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12	.014	.004	.000
	총효과	.344	.216	.029	.001
	직접효과	.096	.060	.046	.040
	간접효과	.248	.156	.034	.000
가설 11	지원정책 →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136	.092	.019	.000
가설 12	지원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112	.064	.017	<.00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매개효과 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매개로 할 때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원 정책이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간접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성식 외(2011)와 정대용, 노경훈(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원 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간의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다는 엄태기, 김석은(202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3) 생애주기에 따른 다집단 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3,998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탄생기, 발전기, 쇠퇴기로 구분하고,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는 생애주기별 집단을 하나의 모델로 검정하는 것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형태동일성 검정, 집단 간 측정 도구 가중치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측정동일성 검정, 구조적 차이를 평가하는 구조동일성 검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카이제곱($\chi^2=2922.787$, $df=600$), CFI=.949, TLI=.941, RMSEA=.033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생애주기별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의 잠재변수의 요인계수에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할 때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비제약모형에서 $\chi^2=2922.787$, $df=600$, CFI=.949, TLI=.941, RMSEA=.033로 나타났으며 측정동일성 모형은 $\chi^2=3015.043$, $df=634$, CFI=.948, TLI=.943, RMSEA=.032로 나타났다. 두 모형 간 $\Delta\chi^2=92.256$, $\Delta df=34$, $\Delta CFI=-.001$ 가 기준치 .01 이하로 나타났고, $\Delta RMSEA=-.001$ 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 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은 $\chi^2=3015.043$, $df=634$, CFI=.948, TLI=.943, RMSEA=.032로 나타났으며, 구조동일성 모형은 $\chi^2=1402.553$, $df=697$, CFI=.918, TLI=.919, RMSEA=.038로 나타났다. 두 모형간 $\Delta\chi^2=1402.553$, $\Delta df=63$, $\Delta CFI=-.030$ 가 기준치 .01 이하로 나타났고, RMSEA=.006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모델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검증

(1)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의 직접 영향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지원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생애주기별로 확인하였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탄생기에서 네트워크($\beta=.358, p<.001$), 협력적 거버넌스($\beta=.087, p<0.01$), 경제적 성과($\beta=.208, p<.001$)는 사회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발전기에서는 네트워크($\beta=.378, p<.001$), 경제적 성과($\beta=.132, p<.001$)는 사회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에서 네트워크($\beta=.0258, p<.001$), 경제적 성과($\beta=.152, p<.01$)는 사회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원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 차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탄생기에서 네트워크($\beta=.158, p<.001$)는 경제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에서 지원정책($\beta=.120, p<.001$)은 경제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기에서 협력적 거버넌스($\beta=.299, p<.01$)는 경제적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원정책과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생애주기에 따른 잠재변수간 경로계수

주 기	경로	Estimate		S.E	C.R	P
		비표준 계수	표준 화 계수			
탄 생	지원정책	0.014	0.016	0.036	0.395	0.693
	네트워크	0.099	0.358	0.009	10.857	***
	협력적 거버넌스	0.066	0.087	0.028	2.324	0.020
	경제적성과	0.116	0.208	0.014	8.400	***
	지원정책	0.001	0.001	0.070	0.021	0.984
	네트워크	0.078	0.158	0.016	4.917	***
발 전	지원정책	0.042	0.050	0.030	1.388	0.165
	네트워크	0.115	0.373	0.010	11.181	***
	협력적 거버넌스	0.036	0.047	0.025	1.430	0.153
	경제적성과	0.075	0.132	0.013	5.689	***
	지원정책	0.173	0.120	0.055	3.166	0.002
	네트워크	0.029	0.054	0.017	1.766	0.077
쇠 퇴	지원정책	-0.004	-0.004	0.079	-0.046	0.964
	네트워크	0.084	0.258	0.022	3.754	***
	협력적 거버넌스	0.117	0.141	0.065	1.806	0.071
	경제적성과	0.107	0.152	0.036	2.939	0.003
	지원정책	-0.108	-0.081	0.119	-0.912	0.362
	네트워크	0.019	0.04	0.032	0.577	0.564
	협력적 거버넌스	0.299	0.254	0.096	3.104	0.002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N=3,998(탄생=1,672, 발전=1,952, 쇠퇴=374)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성과의 경우 탄생기에는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커지면 사회적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 쇠퇴기는 동일하게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탄생기에는 네트워크, 발전기에는 지원정책, 쇠퇴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우수하면 경제적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첫째,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원정책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제도의 경우 기업의 성장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창업기와 쇠퇴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박다인, 박찬희, 2018)다. 유두호(2022)의 생애주기 연구에서는 성숙단계에서 지원정책은 경제적 성과에 부(-)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지원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전기에는 지원정책이 경제적 성과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는 발전, 쇠퇴기에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이는 네트워크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도형, 김충현, 2012; Folmer et al., 2018)를 뒷받침한다.

(2)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과 사회적 성과의 매개효과

생애주기별 잠재변인 간의 간접 경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 및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탄생기에는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beta = .152, p < .05$), 협력적 거버넌스($\beta = .056, p < .05$)가 정(+)적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의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beta = .014, p < .01$)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원 정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beta = .120, p < .05$), 협력적 거버넌스($\beta = .080, p < .05$)가 정(+)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발전기에는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beta = .141, p < .01$), 경제적 성과($\beta = .013, p < .05$)가 정(+)적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경제적 성과의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beta = .003, p < .05$)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지원 정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쇠퇴기에는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beta = .122, p < .01$)가 정(+)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지원 정책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beta = .025, p < .05$),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탄생기에는 지원정책이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를 매개로 그리고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를

이중매개로 사회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매개로,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를 이중매개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기에는 네트워크, 경제적 성과가 매개할 때 그리고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가 이중매개할 때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네트워크 또는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거나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의 이중매개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쇠퇴기에는 네트워크가 매개일 때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가 이중매개할 때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거나 협력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가 이중매개할 때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별 기업의 성장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다르므로 성장 전략 또한 생애주기별로 상이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장지화, 김민지, 2017; Dickinson, 2011; Miller, 1984)를 지지한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라 성장 전략에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연구모형 매개효과 및 경로계수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탄생	지원 정책 →	네트워크			.152***	
		협력적 거버넌스			.056***	
		경제적 성과	→	.246***	.014	.000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014**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9	
		네트워크	→			.120***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201***	.001	.080***		
발전	지원 정책 →	네트워크			.141***	
		협력적 거버넌스			.026	
		경제적 성과	→	.227***	.042	.013**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003**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3	
		네트워크	→			.036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245***	.173**	.036		
쇠퇴	지원 정책 →	네트워크			.122**	
		협력적 거버넌스			.093	
		경제적 성과	→	.228***	-.004	-.012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003
		협력적 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25***	
		네트워크	→			.027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156	-.108	.237**		

* $p < .05$, ** $p < .01$, *** $p < .001$

연구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탄생기에는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가 높으면 사회적 성과도 높게 인식되었으며, 발전기, 쇠퇴기는 네트워크, 경제적 성과가 높으면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경제조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탄생기는 네트워크, 발전기는 지원정책, 쇠퇴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정책은 전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가 매개일 때 전 주기에서 지원정책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협력적 거버넌스 경우는 탄생기에서, 경제적 성과는 발전기에서 지원정책과 사회적 성과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중매개 효과 부분에서는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 이중매개 효과가 탄생기와 쇠퇴기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 이중매개효과는 쇠퇴기에서 지원정책과 사회적 성과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V.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원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간의 생애주기별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모든 생애주기에서 지원정책이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경제적 성과가 상승하면 사회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유자원이론 관점에서 영리기업과 같이 이윤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성과를 높일수 없음을 확인하였다(이광우, 권주형, 2008).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은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한

수단보다는 정보 교환, 협력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연대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이재희, 2015). 즉, 사회적경제조직이 영리 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목적에 더욱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셋째,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가 긍정적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원정책의 방향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사회 인프라, 중간 지원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이인재(2016), 조상미 등(2017)의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다. 즉, 모든 생애주기에서 지원정책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지원정책 발굴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지역사회 자생력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사회적경제조직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강병준, 최조순, 2012).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가 탄생기, 쇠퇴기에는 전부 또는 일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나 발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발전기 이후 지역사회 협력 활동이 시장경쟁에 역량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정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신생 사회적 기업에게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연계, 협력 및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

다. 그러나 최근 정책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이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종료 후 사회적 기업의 생존률은 15%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제4섹터의 특성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형성과 지역 체계에서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 정책 방향을 지역생태계 구축 강화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경영전략 모델 발굴을 제안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초기에는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발전기에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기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강병준, 최조순, 2013; 박수지, 엄태영, 2010),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조희진, 장용석, 2016). 이를 위해 조직이 외부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며 생애주기에 따른 조직 경영전략 수립해야 하며(Maurice, 2004)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성공모델의 발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의 중요성이다(유두호, 엄영호, 2021; 조상미 외, 2022).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기에

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발전기에는 시장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성장하는 단계로, 이미 성장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협력적 거버넌스가 기회비용이 높아 의미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가 양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여 실증하였다. 이는 지원 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성과영향요인을 개별 요인이 아니라 한 개의 모형 안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생애주기 연구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사전에 정의된 성장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의의가 있으나, 조직의 연속적인 생애주기를 단일 시점으로만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분석한다면 더 합리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한계이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 정책,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적 성과의 상호 작용을 분석했으나, 이 요인들 간의 쌍방향 상생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성과 영향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쌍방향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탄생기, 성장기에 비해 쇠퇴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혼종 조직으로 이들 조직의 사회적 성과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나, 최소한의 재무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역할 확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될수 있는 최소한에 재무적 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간 균형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간기현 (2022). 사회적기업 성과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기업가 정신, 재정지원, 거버넌스와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병준 (2014).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요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49, 5-46.
- 강병준, 최조순 (2013).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및 조직형태의 조절효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165-189.
- 경중수, 이보형 (2010). 정책연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업성장단계별 차별화 방안. 중소기업연구, 32(4) 57-7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12.1) '사회적기업 5년의 성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곽근재.(2017) 중소기업 '데스밸리' 극복하려면, 아시아 경제 기고문(2017.3.16.)
- 관계부처합동(2017.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제3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1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노력과 성과보고서.
- 권소일, 이재희 (2017).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2), 197-230.
- 김경례, 윤영선사 (2015).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광주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3(2), 1-25.
- 김기현, 김선명, 최혁라 (2011), 사회적 기업의 성과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평화학연구, 12(4), 389-412.
- 김동철, 김정원 (2016).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0(2), 143-162.
- 김문준 (2018).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 연구, 8(3) 59-89.
- 김보영 (2013). 사회복지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107-132.
- 김복태, 이계만, 박범준 (2016).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10-28.

- 김세운, 황기웅, 정현 (202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간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4(1), 27-57.
- 김숙연 강수진 (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7(2), 1-19.
- 김정원 (2017).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 *경제와 사회*, 114 79-121.
- 김해니 (2022).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김형수, 박성민, 유재은, 백경민, 정척학 (2023). 부모세대 자본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비수도권별 차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4(3), 30-46.
- 김형양 (2006).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1), 181-203.
- 민수진, 송근혜, 이민화 (2015).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다양성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111-2135.
- 박다인, 박찬희 (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 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연구*, 13(6),
- 박민정 (2017). 한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 박수지, 엄태영 (2010).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모순관계와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의 조절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0(2), 287-311
- 박주완 (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 4(3), 103-136.
- 박현희, 박은영 (2017).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관계: 지역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4(3), 61-87.
-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2011). 한국의 기업가정신 활동.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1(1), 17-66.
- 사회적기업학회 (2018) '포용적 성장 해외사회적경제기업성공사례' 보고서. kotra.
- 서도원 (2011). 사회적기업의 발전수준별 특성과 발전요소간 적합성 관계: 상황적 접근. *산업과 경영*, 24(1), 187-205.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신명호, 이아름 (2013). 원주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 *정신문화연구*, 36(4), 31-58.
- 안윤주 (2013).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요인 연구. *한국정책연구*, 13(3), 181-197.
- 엄태기, 김석은 (2021).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지*, 55(1), 93-120.
- 오상환 (2018).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
- 오철호, 고숙희 (201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27-49.
- 유두호 (202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2(1), 235-244.
- 유두호, 엄영호 (202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생애주기별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2), 2181-2207.
- 유두호, 유승주 (2019). 왜 사회적 기업은 자율경영

- 공시제도에서 이탈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외부자원 의존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2), 27-52.
- 윤경옥, 손희정, 오용락 (201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9(2), 89-110.
- 이경은 (2020).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그 양날의 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의 활용.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207-230.
- 이광우, 권주형 (2009). 사회적기업의 역량요인이 공익적 성과와 영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1), 261-292.
- 이도형, 김충현 (2012). 성장단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유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7(2), 383-408.
- 이수진 (2023).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영향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양복, 최항석 (2016).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다양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34(3), 57-77.
- 이인재 (2006).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기업 켄인. 동향과 전망, 66, 62-82.
- 이해진 (2019).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관계: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9(1), 57-89.
- 이흥택 (2018).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 지리적 결정 요인-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1), 34-52.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 도시와 빈곤, 80, 92-115.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장지화, 김민지 (2017). 기업수명주기별 경영자 행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14(5), 281-301.
- 정규진, 서인석, 장희선 (201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지, 22(1), 171-203.
- 정대용, 노경훈 (2009). 기업가의 자아효능감과 네트워크 유형이 신생·성장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3, 795-815.
- 정대용, 양준환 (2008).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가와 중국기업가의 네트워킹 특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 조상미, 간기현, 이수진 (2022). 지역사회 지원환경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트워크와 협력거버넌스의 이중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0(3), 521-552.
- 조상미, 권소일, 김수정 (2012).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3), 1-24.
- 조상미, 정선희, 김재신 (2017). 사회적기업의 폐업 경험: 과정은 어떠한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1), 29-61.
- 조윤숙 (2022). 국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 사회적가치와 기업조연구, 15(3), 115-150.
- 조희진, 장용석 (2016).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29-359.
- 주성수(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개정판). 『한양대학교 출판부』 85
- 채중현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통합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무현, 고은주 (2019).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자산활용도
- 최민석, 송원근 (202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9(2), 49-87.

- 최석현, 남승연 (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 최애희, 박진아, 김운호, 이재원 (2018). 최고경영자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188-19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2022.11.~2023.4
- 홍종학 (2017). 대공항 전후 후버와 루스벨트의 사회경제 정책 비교. *역사비평* 87, 50-77
- Brush, C. G., & Vanderwerf, P. A.(1992). A comparison of methods and sources for obtaining estimat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92, 7 (2), 157-170.
- Cho, S. M·Kim, A. (2017).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ship, Community Networking, and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Evidence from South Korea. 『*Human Service Organizations: Management, Leadership & Governance*』. 41(4): 376-388.
- Dickinson, V.(2011). Cash flow patterns as a proxy for firm life cycle, *The Accounting Review*, 86(6), 1969-1994.
-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 Howard Love (2016). The Start-Up J Curve: The Six Steps to Entrepreneurial Success. *Greenleaf Book Group*.
- Maurice, Stephane. 2004. Lessons from the Equator Initiative: Honey Care Africa's Bee Keeping in.
- Miller, D., & Friesen, P. H.(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rporate life cycle, *Management science*, 30(10), 1161-1183
- Miller, Ethan (2015). Other Economies Are Possible. *Weekend Edition May*, 15-17.
- Mueller, D. C. (1972). A Life Cycle Theory of the Firm.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20(3), 199-219.
- Rhodes, R. A. (2000).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345-363.
- Folmer, E, Nederveen, C., & Schutjens, V. (2018). Network importance and use: Commercial versus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Journal*, 14(4), 470-490
- Pfeffer, J., & Salancik, G. R.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ott, W. R. (1995).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ousands Oaks. *Cal: Sage Publications*.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McGraw*
- Van de Ven, A. H, Hudson, R., & Schroeder, D. M. (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1), 87-108.

투고일자: 2024. 4. 30.

심사일자: 2024. 5. 24.

게재확정일자: 2024. 5. 30.

The Impact of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on Social Outcom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Soojin Lee

Sangmi Cho

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support policies on social outcomes i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by considering their life-cycle stages. We analyzed 3,998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categorized them into birth, development, and decline stages. Our analysis, conducted using the AMOSS 28 program,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policies and social outcomes varies across life-cycle stages, with networks, cooperative govern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playing different mediating roles. Support policies did not directly impact social outcomes in all life stages; however, when mediated by networks, they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development stage, networks and cooperative governance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activities in enhancing the social outcom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t also highlights the large deviation in economic performance creation depending on the life cycle. Therefore, we propose a segmented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activation support policies that enabl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grow and coexist through local networks. This approach will not only solve local community problems and stimulate the local economy but also lead to self-sustaining community activation. These findings provide a fresh perspective on the growth strategi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Keywords: Lifecycl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upport Policy, Network, Social Outcomes